

# 맨 손으로 韓·日에 식품·유통·관광·화학기업 설립 '거인'

1948년 (주)롯데 설립, 사업 다각화  
‘관광입국’ 신념, 호텔·면세점 등  
韓 관광산업에 대규모 투자 감행  
말년엔 신동주·동빈 경영권 분쟁  
90대 고령에 수감위기 등 수난도

19일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일본의 귀화 제안을 물리치고 한일국교 정상화 후인 1967년 맨손으로 껌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 순위 5위 재벌로 성장시킨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신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산에서 5남 5녀의 첫째로 태어났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주요 연보

1922년 울산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화학과 졸업	
1948년 재일 (주)롯데 창립	
1959년 롯데상사 창립	
1961년 롯데부동산 창립	
1967년 롯데아도·롯데제과 창립	
1968년 롯데물산·(주)훼미리 창립	
1969년 롯데오리온스쿠단 창립	
1971년 롯데전자 창립	
1972년 롯데리아 창립	
1978년 롯데서비스 창립	
1985년 롯데네이타센터 창립	
1987년 롯데엔지니어링·롯데물류 창립	
1988년 롯데냉과 창립	
1998~2016년 호텔롯데 대표이사 회장	
1998~2017년 롯데쇼핑 대표이사 회장	
2009~2015년 재일 롯데그룹 (일본롯데홀딩스) 회장	
2011~2017년 롯데그룹 총괄회장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명예회장	
2018년 한국 롯데그룹 명예회장	
2020년 1월 19일 (오후 4시30분) 별세. 향년 99세	

/연합뉴스

1944년 선반(질식공구)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대전에 공장이 전소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그는 껌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 (주)롯데를 설립했다.

이후 롯데는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부문에도 진출해 성공을 거뒀다.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신명예회장은 고국으로 눈을 돌렸다.

한·일 수교 이후 한국 투자 길이 열리자 그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의 면모를 갖춘 롯데는 관광과 유통, 화학과 건설 등으

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는 기필코 관광입국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건설도 신명예회장이 1987년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고인은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롯데를 굽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롯데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한편에 선 신명예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계열사 이사직에서도 퇴임해 형식적으로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뗘게 됐다.

경영권 갈등 속에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나고 90대 고령에 수감 위기에 처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며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신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계미쓰 하초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훈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신춘호 농심 회장, 신경숙 씨, 신선호 일본 식품회사 산사스 사장, 신정숙 씨,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이 동생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신격호 명예회장 걸어온 길



신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연합뉴스



공장을 순시하는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지주



1988년 1월 롯데백화점 본점 확장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왼쪽 두 번째). /연합뉴스



신격호 부부와 장성한 두 아들. /연합뉴스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을 방문한 신명예회장. /롯데지주



2017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신명예회장. /연합뉴스

## “거화취실… 고객과 약속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去華就實 화려함 멀리, 실속 추구〉

### 신격호 명예회장 어록

19일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1948년 롯데를 창립해 2015년 이사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67년 간 한·일 롯데를 진두지휘하며 공격적으로 유통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백화점과 호텔사업은 국내에 기반인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생전에 남긴 어록은 저돌적이고 확고한 그의 사업 철학을 보여줬다.

다음은 신명예회장의 주요 어록.

#### ◆거화취실(去華就實)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에는 ‘거화취실(去華就實)’

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하는 그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도 혼자서 직접 서류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회장들과 달리 사무실이 아주 소박했다. 크기나 장식이 중소기업 사장 집무실 정도였다.

◆고객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학했을 때의 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에도 우유 배달시간이 움켜잡혀 유명했다고 한다. 소문이 나

다보니 주문이 들어나 배달시간을 못 맞추게 되자 신명예회장은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한다. 배달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다. 신명예회장의 이러한 모습에 반한 일본인이 선뜻 사업 자금을 내주었다고 한다.

◆몸에서 열이 나면 병이 나고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기업에 있어서 차입금은 우리 몸의 열과 같습니다. 과다한 차입금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무차입 경영 원칙은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한 층 더 빛을 발했다. 롯데는 신명예회장의 무차입 경영 원칙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었다.

◆한국의 장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라는 기필코 관광입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외국관광객들에게 언제까지나 고궁만 보여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어 새로운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CEO는 회사가 잘 나갈 때 일수록 못 나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악화될 때는 훗날 좋아질 때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신명예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강한 신뢰로 일을 맡기는 편이었다. 그러나 칭찬은 드물었다. 이는 칭찬으로 임원들이 이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 방만한 경영을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늘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좋은 기회를 탐색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어려울 때에 대비해 준비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박인웅 기자